



일주문

소년소녀가장 11명에 장학금

현해 월정사 주지 스님은 13일 월정사에서 평창군내 소년소녀가장 11명에게 장학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220만원을 지급했다.

해인승가대 동문회

혜충 해인승가대 동문회장은 25일 오후 1시 해인사 관음전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을 선출한다. (02)720-8113

'생활선과 건강' 법문

도업 원효학연 구원장(동국대 불교문화대 교수)은 19일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생활선과 건강'을 주제로 법문한다.

호스피스 정도마를 준공

병행 청주 정도마을 원장은 22일 9시30분 제주 약천사 주지 혜인스님을 증빙법사로 불교계 최초의 무량보살 및 준공식을 갖는다.

성철 큰스님 주제 강연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스님은 12일 백련불교문화원이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여는 성철 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법회에서 '나의 은사 성철 큰스님'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일 철학대회 총장회의 참석

순제석 위덕대 총장(사진)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6~7일 일본 불교대학에서 열리는 한·일 철학대회 총장회의에 참석했다.

21세기 불교음악 세미나

호진 동국대 불교사회 문화연구 원장은 18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원효관 4층 소강당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의 과제'를 주제로 가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회갑기념 논문집 발간

박영길 세계국 제법학회 부회장(동국대 법과대 교수)은 12일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회갑기념 논문집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말서 민족근원 찾았어요"

한글날 은관문화훈장 수상 이남덕 씨



출가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이남덕 교수(80·전 이화여대 국문과)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한글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942년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어 연구에 뛰어든 이남덕 교수는 1958년부터 1986년까지 30년간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음양철학을 이용한 의미체계와 음운법칙 분석을 통해 국어의 어원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국어와 일본어의 연관성을 밝혀내, 그러한 업적을 생각하면 이번 훈장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경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국어

형태소 분류법> <15세기 국어의 서법연구> <한국어어원연구 I~IV> 등의 저서에 담았다. 이 교수는 수상 소감을 묻자 "훈장이야 뭐..."라고만 답했다. 대신 "일제시대 전란기를 거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 민족이 바로 확대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민족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말 어원 연구에 매달린 것도 그때뿐"이라며 국어연구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남덕 교수는 1986년 이화여대를 정년퇴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철두철미한 불교에의 귀의. "우리말 어원을 연구하면서 향가나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 등 불교경전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접하다보니 불교에 눈을 떴고 70년대 인도여행을 통해 깨우침을 받았다.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기념식 행사장에도 법복을 입고 나온 이 교수는 5년전부터 충남 계룡산 갑사 대자암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수상 직후 설악산 영시암에 들러 평소 친분이 있는 스님을 만나고 곧 대자암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남덕 교수는 완벽한 학자에서 철저한 수행자로 변해있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노벨 문학상 받은 中 가오싱젠

불교사상 바탕 인간본질 탐구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삼, 죽음, 고통 등 인간의 문제를 다루어 온 중국 출신의 소설가 가오싱젠(高行健·60·사진)이 21세기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2일 "가오싱젠은 보편적 타당성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언어적 독창성이 가득 찬 작품으로 중국 문학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40년 중국 장시(江西)성에서 태어난 그는 1987년 당국의 박해를 피해 출국, 1988년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파리에 정착했다. 현재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 그의 대표작은 1996년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돼 호평을 받은 <영혼의 산(靈山)>. 중국 남서부를 여행하고 쓴 이 소설에서 그는 삶, 죽음, 고통 등의 문제를 유배자 관점에서 접근, 내면의 세계와 자아를 탐구하고, 이를 보편적 진리로 승화시켰다.

한신대 유세종 교수(중문학)는 "그는 모든 형태의 권력, 폭력, 교훈, 계몽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교적 사유를 연상케 하는 '대해탈(大解脫)'의 경지를 인간의 목적지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실천승가회 금강산 정진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최화)는 3~6일 금강산에서 '2000 정진도량'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정진도량에는 지선(상임지도위원) 효림·성관·도현(부의장) 선혜(보덕사 주지) 법안(종책위원장) 장적(집행위원장) 스님 등 회원 32명이 참가했다. 기행중에 열린 성상강연회에서는 효림스님과 김찬구(주)화인통상 대표가 각각 강연했다.



제18회 불미전 시상식·전시회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 개막식이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 3층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 정경용씨를 비롯 수상자 진원희 조계종 포교원장 정현스님, 총무부장 원택스님, 문화부장 해자스님,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석정부대 호국 홍불사 낙성법회

김포 석정부대 호국 홍불사는 8일 군법당 봉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보은 청암사 주지스님을 비롯 해인 삼화불교대학장, 김기병 조계종 포교사단장, 순병철 군법사 등 관공제자 및 신도 7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는선우 창립 9돌 수계법회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창립 9주년을 맞아 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기념 법회 및 화엄신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실상사주지 도법스님과 김중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건국대 성태용 교수, 회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는 엄청난 보물"

조계종 특별구족계 받은 미국인 무량 스님

79년 승산스님의 '할 뿐'(밥 먹을 땀 모든 생각을 버리고 밥을 먹을 뿐)이라는 한마디에 출가. 참선남자의 길로 들어선 미국인 무량스님. 10일 승광사에서 특별구족계를 받아 정식 수행자가 됐다.



물질의 중요성을 누리고 있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무량스님은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한국불교는 엄청난 보물이며, 10년 후 미국의 큰 종교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 스님들과 함께 계를 받아 기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의 일입니다." 깊은 산 속의 암자와 토굴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무량스님은 LA 교외에 우리나라 전통사찰 양식의 태고사 건립 불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에게 한국불교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묻자 "전통의 뿌리가 없는 가운데"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청계사 관음상에 신비한 '하얀꽃'



Focus 지난 97년과 올해 7월 경기 광주 우리절과 대전 광수사에서 피었던 신비스런 '하얀꽃'이 경기 의왕 청계사(주지 종상)에도 출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청계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극락보전 관세음보살상 왼쪽 눈썹주변에 21송이의 이름 모를 꽃이 피었다는 것. 이 꽃은 약 1센티미터 크기로 각 줄기마다 녹두알만한 작은 꽃이 피어 있다.

청계사는 이 꽃에 대한 불교학자와 스님들의 고증작업('우담바라' 여부)를 진행하면서 108일간 정진주일을 설정, 지난 17일부터 기도에 들어갔다. (031)426-2221 김재경 기자

인사

불교방송

△보도위원: 김정득(前 보도부장) △방송홍보 및 뉴미디어 연구위원: 구태서(前 기획실의부장), 박정원(前 아나운서 부장 직무대리) △PD 겸 제작위원: 진영조(前 포교제작부장 직무대리), 김학주(前 교양제작부장 직무대리) △방송기술위원 및 뉴미디어 기술위원: 백낙천(前 기술부장)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부처님의 해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 참사람 육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해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개교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동국대는 불교학을 축으로 하는 한국학과 정보통신을 축으로 하는 정보통신공학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원 등 BK21사업단 선정, 활기차게 건설되고있는 불교종합병원, 목전에 둔 국제원효불교전서 편찬, 서울 불교대학원에 이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 개원, 벤처창업센터 사이버대학과 영상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등 동국대학교는 새천년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국대학교를 주목해 주십시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綠園
동국대학교총장 宋錫球